

“소설을 쓴다는 건 늘 기대되고 설레는 일”

지난 2009년 '자음과 모음'으로 등단해 활발한 작품활동을 펼치고 있는 박솔미 작가. 광주 출신 박 작가는 현재 주목받는 작가 중의 한 사람으로 꼽힌다. 김현문학패, 문지문학상, 김승옥문학상 등 우수한 문학상을 수상한 이력에서 보듯, 작가는 등단 이후 상당한 문학적 성과를 일궈냈다.

최근 작가가 '고양이'를 읽고 돌아왔다. 신작 장편소설 '고요함 동물' (창비)을 펴낸 것. 작가는 그동안 '실현성과 탐미적인 언어'로 자신만의 스타일을 추구하는 작가라는 문단의 평을 받았다. 고양이를 모티브로 한 작품은 문학적 이면서도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낸다. 판타지와 추리적 기법으로 그려낸 작품은 흡사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보는 듯하다.

최근 기자는 박 작가와 전화 인터뷰를 했다. 어렵게 연결된 통화에서 작품을 출간하게 된 계기, 문정 시절에 대한 단상, 이후 계획 등을 풀어냈다.

"원래 창비에서 운영하는 문학웹 '문학3'에 소설을 연재했다. 당시에는 책 출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고 연재가 끝나면 이후에 어떻게 할지 천천히 생각해 볼 예정이었다. 창비에서 출간 제안이 왔고 이야기를 나누다 출간을 결정하게 됐다."

박 작가는 연재 분에서 수정을 많이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그보다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어색한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조금씩 수정했다"며 "그즈음 북서울미술관에서 진행된 강서경 작가의 '사자 생각 삼각' 전시 도록에 수록한 동화를 쓰기도 했는데, 그 작품을 함께 수록하면 어울릴 것 같아 넣었다"고 덧붙였다.

창비 '소설 Q' 시리즈 여섯 번째 소설이기도 한 이번 장편은 주인공 '나'와 고양이 '차미'의 이야기다. 차미가 어느 날부터가 탐정이 되기로 하면서 서사가 흥미롭게 진행된다. 소설은 차미의 발자국이 찍힌 사건일지를 토대로 펼쳐진다. 모두 12장으로 구성된 작품은 '나'의 시선으로 진



행되는 일상과 그 이면을 추적한 차미의 사건기록이 진행되는 구조다. 평범한 일상에서 빛어지는 다양한 사건은 작가 특유의 감각적인 언어, 상상력과 결합돼 의미있는 서사로 전이된다.

이번 소설에도 작가의 개성적인 문체와 언어적 심미안은 빛이 난다. 지난해 김현문학패선정위원회는 "구어와 문어가 중첩되며 빛어내는 독특한 리듬과 함께, 모종의 혼돈을 유도하는 듯한 이 작가의 서술 방식은 삶-이야기의 잠재태와 현실태가 공존하는 기묘한 서사의 시공을 구축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현재 작가는 서울에서 활동 중이다. 그러나 광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부모님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일년에 몇 차례 광주에 온다고 한다. 특히 광주 금남로와 충장로 주변을 걷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다.

"원래 읽는 것을 좋아했다. 책을 많이 읽지는 않았지만 꾸준히 어릴 때부터 읽었다. 그래도 소설을 써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다가 대학에 들어가 글쓰기 수업을 들으면서 재미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계속 써야겠다는 마음을

광주 출신 박솔미 작가, 장편소설 '고요함 동물' 출간 고양이 탐정의 흥미로운 사건일지... 김현문학패 등 수상



먹었다."

박 작가는 한국예술종합학교를 졸업했다. 등단 이후 '그림 무얼 부르지', '백 행을 쓰고 싶다', '겨울의 눈빛', '머리부터 천천히' 등 소설을 펴냈다. 문학적 수준을 담보로 하는 장편 소설을 펴낸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지만 박 작가는 꾸준히 퀄리티 있는 작품을 써내고 있는 중이다. 그녀는 문정과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도 특별히 경계를 두지 않는다. "데뷔하기 전이면 문정이고 데뷔를 하면 작가인 것일 까"라는 답에서 보듯, 내면에는 '글을 쓰고 있는 중'이면 누구든 작가다라는 자의식이 깃들여 있는 듯하다.

"물론 원고료를 받고, 책을 내고, 책이 서점에서 팔리는 것은 이전과는 다른 경험이다. 하지만 읽고 쓰며 지내는 것은 언제나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박 작가는 소설을 쓴다는 것은 "늘 알 수 없고 새롭게 다가오는 일"이라며 "소설과 만나는 일은 늘 기대되고 설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소설을 쓰고자 하는 이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을 물었더니 예상 밖의 대답이 돌아왔다. "괴롭거나 어려움은 있지만 그보다는 즐거움을 많이 느끼며 쓰면 좋겠다"고 말한다. 창작의 고통보다는 글쓰기의 즐거움에 무게를 둔 것이 확실히 이전 세대와는 다른 면모다.

작가는 올 하반기에 단편집을 출간할 예정이다. 앞으로 작가는 타이틀에 걸맞게 앞으로도 꾸준히 읽고 쓰고 발간하는 일을 반복할 것 같다. /박성천 기자 skypark@



박진현의 문화카페

며칠 전 증권작가 N씨로부터 오랜만에 안부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보니 '코로나19'로 한동안 그의 근황을 듣지 못했다. 지난해 가을, 서울의 유명갤러리로부터 초대전을 제안받은 그는 누구보다도 바쁜 연말연시를 보냈다. 하지만 수확이 너무도 들려오는 목소리에는 힘이 빠져 있었다. '좋은 날'이면 만나기로 한 후 그가 들려준 상황은 안쓰러웠다. 2월 말 개막한 그의 전시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관람객들의 발길이 거의 끊겼고 의욕적으로 기획한 '관객과의 대화'도 취소됐다. 또한 해외에서 러브콜을 받은 초대전 역시 현재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돼 무기한 연기됐다. 그나마 5·18 40주년

A극단도 지난 2, 3월 상시 공연을 한만에 안부 전화를 받았다. 그리고 보니 '코로나19'로 한동안 그의 근황을 듣지 못했다.

최근 광주시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지역 문화예술인에게 최대 생계비 1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다. 자격은 광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기존 중위소득 100% 이하 문화예술 종사자로 소득감소액에 따라 월 최대 50만원(최대 2개월)을 지원한다.

사실, 코로나19로 비랑갈에 몰린 이들이 어디 문화예술인 뿐이라. 하지만 광주·전남은 예향이라는 명성과 달리 예술인들이 생활하기에 녹록치 않은 도시다. 예술인 복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예술활동증명제가 한 예다. 예술

힘내라! 예술인

기념 전시는 예정대로 진행돼 '집콕 생활'하면서 창작에 매진중이라며 애써 태연한 척 했다.

이처럼 코로나19는 문화예술인들의 일상에도 깊은 그늘을 드리우고 있다. 예술가와 관객이 '밀폐된' 공간에서 만나는 문화예술의 특성상 '사회적 거리두기'의 직격탄을 받기 때문이다. 실제로 광주시립미술관, 광주문화예회관 등 대부분의 문화예술기관들이 프로그램을 취소하거나 휴관에 들어갔다.

무엇보다 '2020 연극의 해'를 맞은 지역 공연계의 피해는 심각하다. 전남 지역 3월 공연계 매출액이 0원을 기록했다는 가 하면 광주지역 역시 126만원에 그쳤다. 이로 인해 단체 운영비는 물론 생계 위기에 몰린 단체, 예술인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공연예술통합전시장에 따르면 지난 3월 한달간 집계된 전남지역 공연 건수는 0건으로 매출액 역시 0원이었다. 광주에서 30년간 활동하고 있는

인 지원사업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예술활동증명제에 등록된 예술인의 경우 광주·전남은 1%대로 서울 43%, 경기도 23%(2019년 기준)에 비해 현저히 낮다. 특히 광주의 경우 2만 1000여 명의 예술인(예중, 민예중 소속) 가운데 등록 예술인은 고작 1257명이다.

모름지기 시민들의 문화향유는 도시의 품격을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예술인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생계대책이 보장될 때 그 사회는 문화도시라 할 수 있다. 프랑스 등 일부 유럽국가들이 예술가의 노동을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공공재로 인식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 공평한 현실에 지쳐 붓을 쥐는 후다시 캔버스 앞에 앉는다는 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다. 예술인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이우다. 배고픈 예술인들이 늘어날수록 우리 사회의 '문화적 허기'도 커지므로.

<제작국장·문화선임기자>

교보문고, '올해의 아이콘'에 알베르 카뮈 선정

교보문고는 세계 책의 날(20일)을 맞아 '올해의 아이콘'으로 알베르 카뮈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전염병을 다룬 카뮈의 소설 '페스트'가 화제가 된 점과 올해로 타계한 지 60주년이라는 의미가 고려됐다.

이를 기념해 교보문고는 민음사와 함께 카뮈의 '페스트'와 '이방인'을 합본한 한정판을 출간한다. 또한 '올해의 한국 작가'로 김초엽, 박상

영, 박연준, 장유진, 정세랑 등 젊은 작가 5인을 선정했다.

교보문고는 세계 책의 날 당일인 23일에는 전국 영업점에서 방문 고객들에게 기념 스티커를 증정하고 할인 혜택을 준다.

한편 세계 책의 날은 유네스코가 에스파냐 한 지방에서 책 읽는 사람에게 꽃을 선물하던 세인트 조지 축일과 셰익스피어와 세르반테스가 사망한 4월 23일을 기념해 지정했다. /박성천 기자 skypark@

안방객석에서 만나는 '오페라의 유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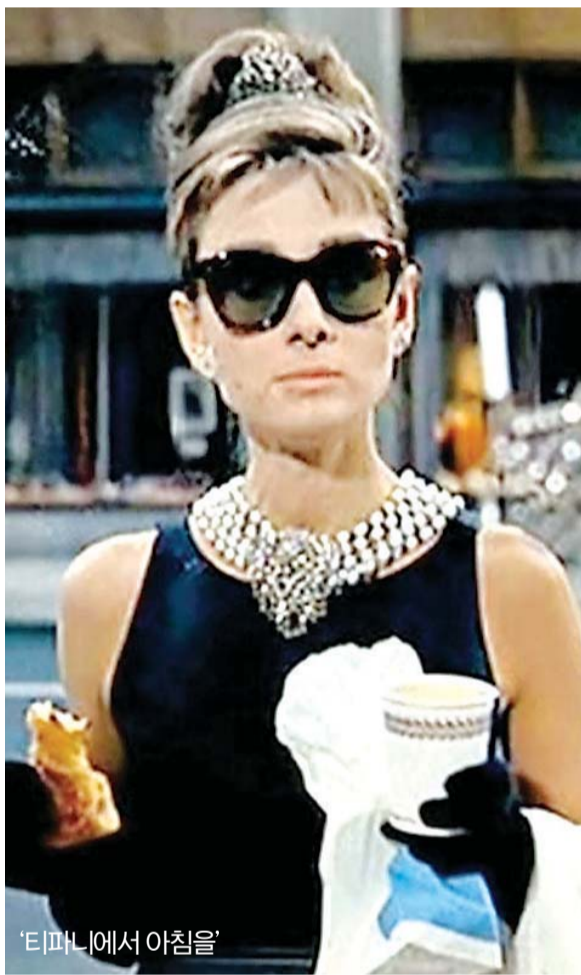
웹버, 유튜브 채널 개설 뮤지컬 공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공연장을 찾지 못하는 이들을 달래줄 선물이 등장했다. 뮤지컬 거장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작품들을 공연장이 아닌 '안방객석'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된 것.

웨버는 지난 3일 유튜브 채널 '더 쇼 머스트 고 온!'(The Show Must Go On!)을 개설해 다양한 뮤지컬 작품들을 선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18일 오전 3시부터 48시간 동안 중계된 웨버의 대표작 '오페라의 유령'에는 전 세계 뮤지컬 팬 1000만 명이 모여 화제가 됐다. 이날 공개된 영상은 2011년 영국 런던 로열 알버트 홀에서 펼쳐진 25주년 기념 공연 실황이다.

웨버는 영국시간 매주 금요일 오후 7시(한국시간 토요일 오전 3시)에 뮤지컬 실황 영상을 공개하고 있다. 앞서 공개한 '요셉 어메이징'과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도 큰 반응을 얻었다. 그는 매주 한 작품을 48시간 동안 무료로 공개하면서 코로나19 구호 기금 마련 캠페인도 진행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오드리 햅번을 만나다

30일~5월 27일 특별전, CGV 터미널점

전 세계의 연인이자 할리우드를 대표하는 배우인 오드리 햅번을 스타 반열에 올려놓은 영화로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공주 앤의 일상 탈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티파니에서 아침을'은 신분상승을 꿈꾸며 살아가는 홀리가 진실한 사랑을 찾아내는 스토리다.

이번 특별전에서는 '로마의 휴일', '사브리나', '화니 페이스', '티파니에서 아침을', '사레이드', '마이 페어 레이디'를 선보인다.

1953년 만들어진 '로마의 휴일'은 첫 주연을 맡은 오드리 햅번을 스타 반열에 올려놓은 영화로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공주 앤의 일상 탈출 이야기를 담고 있으며 '티파니에서 아침을'은 신분상승을 꿈꾸며 살아가는 홀리가 진실한 사랑을 찾아내는 스토리다.

특별전을 관람한 아트하우스 클럽 회원 중 아티스트 등급 회원에게는 '로마의 휴일' 한정판 배지를 선착순으로 증정한다. '로마의 휴일'을 보면 머그잔과 엽서 6종, '티파니에서 아침을'을 관람하면 엽서 배지와 엽서 6종을 주는 '더 스페셜 패키지'도 마련됐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메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

프로야구단지정숙소 승무원정숙소 승무원정숙소 승무원정숙소
KBO LEAGUE KOREAN AIR 아시아나항공 t'way